

#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病證과 氣味배합 분석」

장형근, 신순식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Abstract

Symptoms and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Taeum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amp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Jang Hyoeng Geun, Shin Soon Shik

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basis for existing or new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To this end, prescriptions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This thesis focused on symptoms and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

교신저자 : 신 순 식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Tel : 051-850-7414, 016-9225-5200 e-mail : ssshin@deu.ac.kr

접수 : 2004/ 5/ 24      채택 : 2004/ 5/ 27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which were describ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Taeum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amp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Those symptoms and prescriptions originate from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The symptom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ology. The prescriptions were first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Then, a mix formula of oriental medicines pursuant to those prescriptions was studied. Lastly, established prescriptions, which were in conformity with the above prescriptions, were select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symptoms with regard to the year when Taeum is affecting the earth energy and the dampness energy is partially over-abundant can be, based on the theory of the five elements and six climates, diagnosed as the symptoms from impaired kidney due to excessive dampness energy. Established prescriptions pursuant to prescriptions based on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can be broken down into the following: Poria powder with five herbs (Oryeongsan); Divine black bird decoction (Jinmootang); Tetrandra and astragalus decoction (Banggihoanggitang); Licorice, dried ginger, poria and bighead atractylodes decoction (Gamgangryeongchooltang); Spleen-reinforcing powder (Shilbeesan).

Therefore, symptoms of six kinds of weather presented in *the Various Changes in the Dominations of the Six Energies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Diseases of Plain Questions* can be analyzed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As a result, in addition to the methodology that analyzes existing prescriptions within the boundary of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in *Yellow Emperor's Canon of Internal Medicine*, it is expected that a theoretical basis for new prescriptions can be provided by analyzing established prescriptions based on prescriptions from the theory for properties and tastes of Korean oriental herbal medicines.

---

Key Word : Oryeongsan, Jinmootang, Banggihoanggitang, Gamgangryeongchooltang, Shilbeesan

---

## I. 緒 論

韓藥은 氣味論에 입각하여 그 효능을 예측한다. 한약물 상호간의 길항작용·相乘작용·變性작용을 나타내는 藥性的의 七情說과 方劑의

배합이론인 君臣佐使說도 氣味論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약학과 방제학은 기미론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방처방이 기미론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황제내경』<sup>1)</sup>에는 13개의 方劑<sup>2)</sup>만이 기록되어 있고 運氣論의인 바탕위에서 기미처방을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하고 있다:

역대의 많은 『황제내경』 注釋書에는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六氣의 병증과 기미처방에 대하여 주석이 달려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과 기존 方劑에 대한 기미론적 적용이나 創方을 시도한 의견은 내놓고 있지 않다.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된 기미처방으로 『상한론』의 처방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成無己(약1063-1156년)<sup>3)</sup>이

다. 그는 『傷寒明理論』(1156년)<sup>4)</sup>에서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끌어다가 『상한론』의 처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없이 잘못 적용하여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한론』 처방에 대한 『내경』 기미론의 첫 분석으로 『내경』 기미론의 처방분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金代의 張元素(1151-1234년)<sup>5)</sup>는 『醫學啓源』(1186년) 「五行制方生克法」에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일부 인용하고<sup>6)</sup> 있으나 구체적으로 처방을 분석하고 적

傷寒明理論 3卷(1142년)·『藥方論』 1卷이 있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中國名醫名著名方』. 第1版 第1次印刷.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5.)

4) 예를 들면 “『內經』所謂‘風淫所勝，平以辛，佐以苦，以甘緩之，以酸收之’”와 “『內經』所謂‘風淫於內，以甘緩之，以辛散之’”의 기미처방을脾胃病을 치료하는 半夏瀉心湯과 같은 類에 적용하지 않고, 太陽中風을 치료하는 桂枝湯에 적용시킨 것은 『내경』의 병증과 기미처방의 충분한 이해없이 무리하게 『상한론』 처방을 분석한데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成無己著; 朱鵬飛 校注. 『傷寒明理論』.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124.)

5) 張元素(1151-1234년)은 字는 潔古이고 金代 易州(지금 河北省 易縣) 사람이다. 金元시기 “易水學派”의 창시자이다. 저서로는 『醫學啓源』3권·『장부표본한열허실용약식』·『珍珠囊』1권이 현존하고 있고, 그밖의 저서로는 『醫方』·『藥注難經』·『潔古本草』 등은 모두 佚失되었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41-2.)

6) “當歸拈痛湯：治濕熱爲病，肢節煩痛，肩背沈重，胸膈不利，遍身疼，下注於脛，腫痛不可忍。經云：‘濕淫於內，治以苦溫。’羌活苦辛，透關利

1) 『황제내경』은 『素問』과 『靈樞』로 구성되어 있다.

2) ① 生鐵落飲(『素問』 「病能論」) ② 蘭草湯(『素問』 「奇病論」) ③ 血枯方(『素問』 「腹中論」) ④ 澤瀉飲(『素問』 「病能論」) ⑤ 鷄矢醴(『素問』 「腹中論」) ⑥ 左角發酒(『素問』 「繆刺論」) ⑦ 半夏湯(『靈樞經』 「邪客」) ⑧ 溲菴飲(『靈樞經』 「癰疽」) ⑨ 小金丹(『素問遺篇』 「刺法論」) ⑩ 馬膏方(『靈樞經』 「經筋」) ⑪ 桂酒(『靈樞經』 「經筋」) ⑫ 豕膏方(『靈樞經』 「癰疽」) ⑬ 蜀椒桂酒(『靈樞經』 「壽夭剛柔」)(許濟群·王綿之 主編. 『方劑學』. 第1版 第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3) 成無己(약1063-1156년)는 宋代 聊攝(지금 山東 陽谷縣) 사람이고, 집안대대로 儒醫였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며 傷寒學에 정통하여 수십년간 이 연구에 몰두하였다. 저서로는 『注解傷寒論』 10卷(1144년)·『

용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明代의 李時珍(1518-1593년)<sup>7)</sup>은 『本草綱目』(1578년)의 「五運六淫用藥式」<sup>8)</sup>에서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그대로 소개하고 약간의 해설을 붙여 그 중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 기미처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한약이나 방제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清代의 吳瑭(1758-1836년)<sup>9)</sup>은 『溫病條辨

節而勝濕；防風甘辛，溫散經絡中流濕，故以爲君。水性潤下，升麻·葛根苦辛平，味之薄者，陰中之陽，引而上行，以苦發之也。白朮苦甘溫，和中除濕；蒼朮體輕浮，氣力雄壯，能去皮膚腠理之濕，故以爲臣。血壅而不流則痛，當歸身辛溫以散之，使氣血各有所歸。人蔘·甘草甘溫，補脾養正氣，使苦藥不能傷胃。仲景云：濕熱相會，肢節煩痛，苦蔘·黃芩·知母·茵陳者，乃苦以泄之也。凡酒製藥，以爲因用，治濕不利小便，非其治也。豬苓甘溫平，澤瀉鹹平，淡以滲之，又能導其留飲，故以爲佐。氣味相合，上下分消，其濕氣得以宣通也。”(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下).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北京出版社, 1997: 2007.)

- 7) 李時珍(1518-1593년)은 字는 東壁이고 晚號는 瀕湖山人으로 明代 蕪州(지금의 湖北省 蕪春縣) 瓦礫壩人이다. 대대로 의사집안으로 30여년의 노력 끝에 61세때인 1578년에 本草學의 巨著인 『本草綱目』을 발간하였다. 그밖의 저서로는 『瀕湖脈學』(1564년)·『奇經八脈考』(1572년)이 있고, 나머지 『三焦客難』·『命門考』·『五臟圖論』·『瀕湖醫案』·『瀕湖集簡方』은 모두 佚失되었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78-9.)
- 8) 李時珍 著. 『本草綱目』(校點本 第1冊).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74-6.
- 9) 吳瑭(1758-1836년)은 字는 鞠通이고 淮陰(지금의 江蘇省 淮陰) 사람이다. 1798년 『溫病條辨』을 지어 溫病의 三焦病機를 계통적으로 밝히고 治溫大法과 많은 名方을 수집하여 溫

』(1798년)의 「卷一」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의 「辛涼平劑銀翹散方」에서 “삼가 『내경』의 ‘風淫於內，治以辛涼，佐以甘苦；熱淫於內，治以鹹寒，佐以甘苦’의 가르침을 따른다”<sup>10)</sup>

고 하였고, 또한 「化斑湯方」의 「方論」<sup>11)</sup>과 「秋燥勝氣論」<sup>12)</sup>에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의 기미처방을 일부 인용하고 있으나 이의 기미처방을 운용하여 『溫病條辨』의 처방을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 玄谷 선생(1911-1987)<sup>13)</sup>이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서 제시된 기미처방에 맞는 한약 선별의 예를 들고 있고 『상한론』의 처방까지 『내경』의 氣味藥性論의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sup>14)</sup> 이는 기존 방제뿐만이 아니고

病學說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위의 책, 149-51.)

- 10) “本方謹遵『內經』‘風淫於內，治以辛涼，佐以甘苦；熱淫於內，治以鹹寒，佐以甘苦’之訓。”(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華夏出版社, 1998: 834.)
- 11) “此熱淫於內，治以鹹寒，佐以甘苦法也。”(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위의 책, 836.)
- 12) “經以寒淫所勝，治以甘熱，此但燥淫所勝，平以苦溫，乃外用苦溫辛溫解表，與冬月寒令而用麻桂薑附，其法不同，其和中攻裏則一，故不立方。”(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앞의 책, 846.)
- 13) 玄谷은 尹吉榮(1911-1987) 선생을 말한다. 玄谷은 선생의 號이다.
- 14)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서울: 成輔社, 1983: 144-175.

새로운 創方에 대하여 기미약성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三陰三陽중에서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병증을 분석하고 그 병증에 대하여 제시된 氣味배합을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으로 분석한 뒤에 이 氣味배합에 부합하는 기존방제를 제시하였다.

## II.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

『황제내경』의 기미약성론은 『素問』의 「生氣通天論篇第3」·「陰陽應象大論篇第5」·「五臟生成篇第10」·「藏氣法時論篇第22」·「宣明五氣篇第23」·「五運行大論篇第67」·「六元正紀大論篇第71」·「至眞要大論篇第74」와 『靈樞經』의 「五味第56」·「五味論第63」·「九鍼論第78」 등의 편에서 논하였다. 玄谷 선생은 이상의 『황제내경』의 여러 편에 제시되어 있는 氣味藥性を 五味·약리작용·선택작용·부작용·五臟의 補와 瀉·有利·不利·病苦·所欲·味の 優劣·六氣치료로 나누어 정리하고 표로 작성하였다.<sup>15)</sup>

酸味の 약리적 작용은 弛緩한 것을 收斂하고 肺를 補하고 肝을 瀉하며 肝과 筋에 親和

性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筋病과 脾病에는 不利하며 肝病에는 利로우며 過食에서 오는 부작용은 肌肉이 胝膈하고 膺揚하며 小便이 癱閉하는 症이 있고 筋을 傷하며 甘味에는 優勢하나 辛味에는 劣勢하다.

苦味の 약리적 작용은 脆奕한 것을 堅固히 하고 發하고 泄하고 淸하며 腎을 補하고 脾를 瀉하며 心과 骨(骨이 血로 된 곳도 있다)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肺病과 骨病(骨病이 血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고 心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溫과 습하면 燥를 제거하고 熱과 습하면 濕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脾氣가 濡하지 못하여 胃氣가 厚해지고(胃에 留하는 것을 말함) 皮膚가 枯燥하고 毛拔하며 嘔症이 있고 氣를 傷하며 辛味에는 優勢하나 鹹味에는 劣勢하다.

甘味の 약리적 작용은 急迫症狀을 緩和하고 脾를 補하며 心을 瀉하고 脾와 肉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肉病과 腎病에는 不利하며 脾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습하면 內生의 寒을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喘滿·色黑·惋心·骨痛·髮落의 症이 있으며 肉을 傷하며 鹹味에는 優勢하나 酸味에는 劣勢하다.

辛味の 약리적 작용은 興奮·發散하고 燥한 것을 潤하며 肝을 補하고 肺를 瀉하며 肺와 氣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있고 氣病과 肝病에는 不利하며 肺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熱과 습하면 外入의 寒을 제거하고 涼과 습하면 風을 제거하며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筋脈이 沮弛하여 精神에 害가 되며 筋急하고 爪枯하며 洞心하고 皮毛를 傷하며 酸味에는 優勢하나 苦味에는 劣勢하다.

鹹味の 약리적 작용은 堅한 것을 淸하고 心을 補하고 腎을 瀉하며 腎과 血(血이 骨로 된 곳도 있다)에 친화성이 있어 상호 선택작용이

15) 이상의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은 玄谷 선생이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尹吉榮 著. 앞의 책, 128-143.)에서 甘味·辛味·酸味·苦味·鹹味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작성한 것을 五行의 순서에 따라 酸味·苦味·甘味·辛味·鹹味별로 정리하고 일부 오자를 교정한 것이다.

있고 心病과 血病(血病이 骨病으로 된 곳도 있다)에는 不利하고 腎病에는 利로우며 氣의 寒과 습하면 熱과 火를 제거하고 과식에서 오는 부작용은 大骨(腰高骨)의 氣를 傷하며 脈이 凝泣하여 色이 變하고 渴症이 있고 血을 傷하며 苦味에는 優勢하나 甘味에는 劣勢하다.

氣의 작용을 말하면 氣에는 和氣·溫氣·涼氣·熱氣·寒氣의 五氣가 있는데 味로써 補肝·補脾·補肺·補腎·瀉心하는 데는 和와 並用하고, 補心·瀉肺·瀉腎에는 溫과 병용하며, 瀉肝에는 涼과 병용하고, 瀉脾에는 或溫·或涼·或熱과 병용한다.

味로써 六氣를 治할 때, 治熱에는 寒과 병용하고, 治濕·治寒에는 熱과 병용하며, 治燥에는 溫과 병용하고, 治風에는 涼과 병용한다.

또, 甘은 緩하고, 辛은 散하고 潤하며, 酸

은 收하고, 苦는 泄하고 燥하고 堅하며, 鹹은 軟하니 그 특성을 이용하여 苦急하면 甘으로 緩하고, 苦緩하면 酸으로 收하고, 苦濕하면 苦로 燥하고, 苦氣逆하면 苦로 泄하고, 苦燥하면 辛으로 潤하며 散하려면 辛으로 散하고 軟하려면 鹹으로 軟하고 緩하려면 甘으로 緩하고 收하려면 酸으로 收하고 堅하려면 苦로 堅한다.

또, 風은 辛으로 調上하고 寒은 溫하고 熱은 鹹으로 淸하여 그 上을 調하고 苦로 發하고 酸으로 收하며 濕은 苦로 燥하고 甚하면 發하고 泄하며 火는 마땅히 鹹과 酸으로 滲하고 泄한다(漬는 漬水로 氣味와 관계가 없어 뻐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

味	作用	選擇作用	補	瀉	副作用	不利 (五行相剋)	有利 (本臟味)	病 苦	所欲	味優劣 (五行相剋)	六氣 治療
酸味	收斂 (澁味同)	肝筋	肺	肝	臑脇臂揭, 小便癢, 傷筋	脾病, 筋病 (病筋縮, 傷筋)	肝病	心苦緩酸收	欲收酸收	勝甘敗辛	
苦味	堅稟. 發淸 泄. 治燥. 治濕	心骨 (血)	腎	脾	胃氣厚(留物). 皮膚, 枯燥. 拔毛, 傷氣	肺病, 骨病 (骨寒, 傷骨)	心病	肺苦氣逆苦泄 脾苦濕苦燥	欲堅苦堅	勝辛敗鹹	濕苦 燥苦
甘味	緩和. 治內 寒. 滲泄(淡 滲泄)	脾肉	脾	心	喘滿. 色黑. 愧心. 骨痛. 髮落. 傷肉	腎病, 肉病 (助濕, 傷肉)	脾病	肝苦急甘緩	欲緩甘緩	勝鹹敗酸	內寒甘
辛味	發散. 潤燥. 治風. 治外寒	肺氣	肝	肺	害精神. 筋急. 爪枯. 洞心. 傷皮毛	肝病, 氣病 (筋脈阻馳, 傷氣)	肺病	腎苦燥辛潤	欲散辛散	勝酸敗苦	外寒辛 風辛
鹹味	稟堅. 下泄 火. 治熱火	腎血 (骨)	心	腎	大骨氣傷. 脈 凝泣. 色變. 渴症. 傷血	心病, 血病 (凝泣, 傷血)	腎病	脾苦厚鹹泄	欲稟鹹稟	勝苦敗甘	熱火鹹
氣	治熱에 并寒하고 治濕에 并熱하고 治燥에 并溫하고 治寒에 并熱하고 治風에 并涼하고; 補肝에 并和하고 瀉肝에 并涼하고; 補心에 并溫하고 瀉心에 并和하고; 補脾에 并和하고 瀉脾에 并或溫或熱或涼하고; 補肺에 并和하고 瀉肺에 并溫하고; 補腎에 并和하고 瀉腎에 并溫한다.										
備考	『難經』에 五行相生相剋을 이용하여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母한다고 하였다. 溫, 熱은 發熱하니 甘, 辛과 같은 작용을 하고, 寒, 涼은 發泄하니 苦, 鹹과 같은 작용을 하나 軟堅하는 작용이 없다.										

### Ⅲ. 『素問』 「至眞要大論」 에 제시된 太陰在泉 濕 淫所勝의 病證 분석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太陰在泉, 濕淫所勝 하였을 때 제시한 病證은 다음과 같다:

#### ○ 제시한 病證 :

“歲太陰在泉, …… , 濕淫所勝, …… , 民病飲積, 心痛, 耳聾, 渾渾焯焯. 噎腫喉痺, 陰病血見, 少腹痛腫, 不得小便, 病衝頭痛, 目似脫, 項似拔, 腰似折, 脾不可以回, 臑如結, 膈如別.”<sup>16)</sup>

#### ○ 病證 한글풀이:

太陰濕土가 在泉의 해인 辰戌년에 濕氣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 , 사람들이 병들어 飲積이 되고 心痛을 일으키며 耳聾으로 잘 들리지 않으면서 귀가 멍멍해진다. 목구멍이 붓고 喉痺가 되며 前後陰이 병들어 출혈이 나타나고 少腹이 붓고 아프며 소변을 볼 수 없다. 병이 머리로 치받쳐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지는 듯하고 목이 뽑히는 것 같으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넓적다리는 돌릴 수 없으며 오금이 매듭지어진 것 같고 장딴지는 찢어지는 것 같다.

‘太陰在泉’은 太陰濕土在泉의 해를 가리킨다. 太陰在泉이면 반드시 太陽司天이 된다. 여

기에 해당되는 해는 辰年과 戌年이다. ‘濕淫所勝’은 濕氣偏勝으로 기후는 溫에 치우쳐 있다. 在泉之氣는 일년중 하반기의 기후변화를 주관한다. 太陰在泉의 해의 하반기는 기후가 雨水에 치우쳐 있고 濕氣가 편승하게 된다.<sup>17)</sup>

‘飲積’에서 ‘飲’은 水飲을 말하고 ‘積’은 머물러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 태음재천의 해에 하반기의 기후가 濕에 치우치면 몸도 이에 대응하여 脾病이 쉽게 생겨 運化기능이 정상을 잃어 ‘水氣’, ‘痰飲’ 등 : 飲이 머물러서 쌓이는 질병이 쉽게 나타난다. ‘心痛’은 胃脘痛을 가리키고 脾胃病에 해당된다. 태음재천의 해에는 몸의 脾胃가 쉽게 병에 걸려 나타난다. ‘耳聾, 渾渾焯焯’은 이농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噎腫’은 목이 붓고 아픈 것을 말한다. ‘喉痺’는 병명이다. 『諸病源候論』 「喉痺候」에 “喉痺者, 喉裡腫塞痺痛, 水漿不得入也.”<sup>18)</sup>라고 하여 喉痺의 임상특징은 목이 붓고 아프며 막혀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足陽明胃經이 “上耳前, 過客主人, …… , 從大迎前下人迎, 循喉嚨, …… , 所生病者, …… , 頸腫喉痺, …… .”<sup>19)</sup>라는 흐름과 病證으로 미루어 볼 때, ‘耳聾’, ‘噎腫’, ‘喉痺’ 등은 脾胃와 많은 관련이 있다. ‘陰病血見’에서 ‘陰病’은

17) 方藥中·許家松 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24.

18) 巢元方 等著. 『諸病源候論』 卷30 「喉痺候」, 第1版, 第5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0.

19)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106.

16)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至眞要大論篇」第74.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474.

前陰과 後陰의 질병을 가리키고, '血見'은 출혈을 가리킨다. 따라서 '陰病血見'은 前陰과 後陰의 출혈을 뜻하는 것으로 尿血、便血、婦人崩漏 등을 가리킨다. 前後陰출혈은 張隱庵과 高士宗의 견해로 보아 腎病일 수도 있고 脾病일 수도 있다. 張隱庵은 "自陰病至不得小便, 以邪濕下流, 爲腎臟受病."<sup>20)</sup>이라고 注를 달았고, 高士宗은 "陰病見血, 脾絡虛也."<sup>21)</sup>라고 注를 달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태음재천의 해에는 몸에 脾病이 쉽게 생겨 脾가 統血을 하지 못하여 노혈, 변혈, 붕루 등의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토가 勝하여 水를 乘하는 원인으로 腎病이 생겨 腎을 精을 갈무리하지 못하므로 노혈, 변혈, 붕루 등의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다. '少腹痛腫, 不得小便'에서 少腹部는 足太陰脾經의 "上膝股內前廉, 入腹, 屬脾, 絡胃"<sup>22)</sup>, 足陽明胃經의 "下膈, 屬胃, 絡脾, …… , 下挾臍, 入氣街中, …… , 下循腹裡, ……."<sup>23)</sup>, 足少陰腎經의 "其直者, 從腎上貫肝膈"<sup>24)</sup>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足少陰腎經의 경우는 위로 肝膈을 뚫고 순행하는 중에 腹裡

를 지나치게 된다. 따라서 '少腹痛'은 脾胃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病衝頭痛'에서 '衝'은 水氣上衝을 가리킨다. 이는 '少腹痛腫, 不得小便'이 있을 때 소변이 통하지 않아 水邪上衝으로 머리가 아픈 것이다. '目似脫'은 눈이 붓고 아파서 빠지는 것 같은 증상을 말하고, '項似拔'은 뒷목이 아파서 뽑히는 것 같은 증상을 말한다. 이 두 증상은 '病衝頭痛'과 연계되어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두 눈이 붓고 아프며 뒷목도 뽑히듯이 아픈 병증을 말한다. '腰似折'은 허리가 꺾이듯이 아픈 것을 말하고, '髀不可以回'는 넓적다리의 활동이 장애를 받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少腹痛腫, 不得小便'이 있을 때 水邪上逆으로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뒷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는 이외에도 허리가 아프고 하지의 활동이 장애를 받는 증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臏如結'은 무릎관절에 활동장애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안되는 것을 말하고 '臑如別'은 종아리가 쥐가 나서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을 말한다. 이는 '少腹痛腫, 不得小便'이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靈樞』「經脈篇」에 "膀胱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眥, 上額, 交巔, …… , 還出別下項, …… , 抵腰中, …… , 入臑中, …… , 過髀樞, …… , 下合臑中, 以下貫踰內, …… ,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臏如結, 踰如裂."<sup>25)</sup>이라고 하여 足太陽膀胱經의 是動病과 관련된다. 張介賓은 "按經脈篇爲膀胱經病, 此以土邪淫勝克水, 而腎合三焦膀胱, 俱爲水藏, 故病及焉."<sup>26)</sup>이라고 하여 태음재천의 해에 膀胱經

20) 鄭林、楊幼新、趙亞莉、李立祥 主校; 王玉興、翁連溪、孫燕平 協校. 『黃帝內經素問集注』. 鄭林 主編; 王國辰、孫中堂、齊昉 副主編. 『張志聰醫學全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3.

21) 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第2版. 第1次印刷.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648.

22)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위의 책, 1989: 109.

23)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앞의 책, 1989: 106.

24)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앞의 책, 1989: 115.

25)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앞의 책, 1989: 113.



病은 濕氣가 편승하면 몸의 脾氣가 편승하게 되고 乘腎制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脾氣偏勝으로 脾자체는 물론이고 상극관계에 있는 腎에 영향을 주어 脾病、腎病이 발생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濕氣와 脾氣에 있음을 알 수 있다.

運氣論에서 六氣의 偏勝으로 생긴 氣候、物候、인체의 발병 상황은 일관되게 五行生克制化의 이론으로 되어 있고,<sup>27)</sup> 몸의 병증을 표현하는 방식은 운기론적인 방식보다는 몸의 병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몸의 臟腑와 六氣가 결합된 형식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운기론적인 방식에서 표현된 병증을 잘 분석해 보면 몸의 형식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歲太陰在泉, 濕淫所勝”은 太陰在泉의 해인 辰年과 戌年の 하반년에 濕氣가 편승하여 생긴 병증이라는 運氣論의 인용어는 「至眞要大論」의 “外淫於內, 所勝治之.”에 대한 王冰의 견해<sup>28)</sup>와 五行生克制化 이론에 의하여 濕氣外淫內傷腎證으로 바꿀 수 있다.

#### IV. 『素問』 「至眞要大論」에

26) 張介賓 編著.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954.

27) “六氣淫勝의 氣候、物候及人體發病情況, 始終貫穿着五行生克制化的理論..”(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第1版 第1次印刷.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536.)

28) “上淫於下, 天之氣也, 外淫於內, 地之氣也. 隨所制勝, 而以平治之也.”(王冰 撰; 高保衡、林億 注. 『黃帝內經素問』. 第1版 第6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507.)

## 제시된 太陰在泉 濕淫 所勝의 氣味배합 분석 과 기성方劑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太陰在泉, 濕淫所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 ○ 제시한 기미배합 :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sup>29)</sup>

#### ○ 기미배합의 한글풀이:

濕邪가 몸안에 침범하면 ‘苦熱’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고 ‘酸淡味’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고 ‘苦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燥하게 하며 ‘淡味’의 한약을 使藥으로 하여 泄下시킨다.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표1)에 의하면, 濕氣가 몸의 안이나 밖에서 침범하면 ‘苦熱’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脾가 濕으로 고통을 받으면 ‘苦味’를 급히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苦味’로 脾의 濕을 말려주고 ‘熱’로 濕氣를 제어하는 ‘苦熱’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여 濕을 치료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苦味’가 補腎하여 腎氣 활동을 증진시켜 相克관계에 있는 脾氣 활동을 조절하여 濕氣의 항진을 막는다. ‘酸味’는 ‘苦味’와 相生관계에 있어 ‘苦味’의 燥濕작용을 더 강화하고 ‘淡味’의 滲泄작용을 보태어 脾氣 활동이상으로 생기는 濕을 조절하므로 ‘苦味’와 ‘淡味’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여 君藥의 작용이 무리없이 잘 작용하도록 하였다. 脾는 濕을

29)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위의 책, 1981: 475.

싫어하고 燥를 좋아하므로 '苦味'로 燥濕하고 위의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임의로 한약을 '淡味'로 滲泄하여 '苦味'와 '淡味'의 한약을 佐 선정하여 방제를 구성할 수 있다.(표2 참조) 使藥으로 한 것이다.

표2.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氣味배합에1)

方劑에	氣味배합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
		君 藥	臣 藥	佐 藥	使 藥
太陰在泉 濕淫所勝	방제 ①	白朮(苦甘溫)	白芍藥(苦酸微寒) 薏苡仁(甘淡涼)	防己(苦寒)	白茯苓(甘淡平)
	방제 ②	厚朴(苦辛溫)	五味子(酸甘溫) 猪苓(甘淡平)	篇蓄(苦微寒)	燈心草(甘淡微寒)
	방제 ③	蒼朮(辛苦溫)	山茱萸(酸澁微溫) 滑石(甘淡寒)	黃芩(苦寒)	白茯苓(甘淡平)
	방제 ④	白朮(苦甘溫) 附子(辛甘大熱)	訶子(苦酸澁平) 薏苡仁(甘淡涼)	黃連(苦寒)	猪苓(甘淡平)
	방제 ⑤	白朮(苦甘溫) 乾薑(辛熱)	烏梅(酸澁平) 薏苡仁(甘淡涼)	黃柏(苦寒)	通草(甘淡微寒)
	방제 ⑥	吳茱萸(辛苦熱)	五倍子(酸澁寒) 通草(甘淡微寒)	黃柏(苦寒)	白茯苓(甘淡平)
	.	.	.	.	.
	.	.	.	.	.
	.	.	.	.	.

위의 표2와 같이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많은 수의 방제를 만들 수 있고, 이들 방제중에서 우열을 가려 우수한 방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첫째, 한약 선택이 한약학적으로 가장 病症에 적합한 약물인가? 둘째, 한약들 사이의 협동작용과拮抗作用이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배합되었나? 셋째, 환자의 체질에 적합한가? 세 가지를 따져보아 결함이 없으면 우선 우수한 방제로 보고 임상결과로 확정 짓는다.

또한, 약물에는 複味도 있고 一味로는 약하여 數味를 합하여야 할 때도 있고, 협동작용

을 얻기 위하여 藥味를 더할 때도 있고, 味를 무시하고 氣만을 취할 때도 있으므로 藥味의 수는 氣味로 표시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sup>30)</sup>

위의 기미배합에 적합한 기존방제로는 五苓散、眞武湯、防己黃芪湯、甘藷苓朮湯、實脾散 등을 선별할 수 있다.(표3 참조)

30)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위의 책, 145-6.

표3.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기미배합에 맞는 기성方劑 예

기존方劑	氣味배합	治以苦熱	佐以酸淡	以苦燥之	以淡泄之
		君藥	臣藥	佐藥	使藥
太陰在泉 濕淫所勝	五苓散	白朮(苦甘溫); 桂枝(辛甘溫)	猪苓(甘淡平)	白朮(苦甘溫)	澤瀉(甘鹹寒). 白茯苓(甘淡平)
	眞武湯	白朮(苦甘溫); 炮附子(辛甘大熱). 生薑(辛微溫)	白芍藥(苦酸微寒); 白茯苓(甘淡平)	白朮(苦甘溫)	白茯苓(甘淡平)
	防己黃芪湯	白朮(苦甘溫); 黃芪(甘溫). 生薑(辛微溫)	大棗(甘溫)	防己(苦寒)	甘草(甘平)
	甘薑苓朮湯	白朮(苦甘溫); 乾薑(辛熱)	白茯苓(甘淡平)	赤芍藥 (酸苦微寒)	甘草(甘平)
	實脾散	白朮(苦甘溫); 炮乾薑(辛熱). 炮附子(辛甘大熱)	木瓜(酸溫); 白茯苓(甘淡平). 大棗(甘溫)	厚朴(苦辛溫). 木香(辛苦溫). 大腹子(辛微溫). 草果仁(辛溫). 生薑(辛微溫)	炙甘草(甘平)

### V. 『素問』 「至眞要大論」에 제시된 太陰在泉 熱氣 反勝의 氣味배합 분석 과 기성方劑

『素問』 「至眞要大論」에서 太陰在泉, 熱氣反勝 하였을 때 제시한 氣味배합은 다음과 같다:

- 제시한 기미배합 :  
“治以苦冷, 佐以鹹甘, 以苦平之.”<sup>31)</sup>
- 기미배합의 한글풀이:

太陰濕土의 在泉의 해에 濕氣가 편승하여 하나 실제로는 도리어 熱氣가 偏勝하여 기후가 火熱에 치우친 경우이다. 熱邪가 몸안에 침범하면 ‘苦冷’의 한약을 君藥으로 하고, ‘鹹甘味’의 한약을 臣藥으로 하며, ‘苦味’의 한약을 佐藥으로 하여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본 氣味배합은 ‘苦冷’을 君藥으로 하여 濕熱을 치료하고, ‘鹹甘味’를 臣藥으로 하여 ‘鹹味’로 瀉腎하고 ‘甘味’로 滲泄하며, ‘苦味’를 佐藥으로 하여 燥濕함으로써 몸안의 正氣를 고르게 한다.

위의 기미배합에 근거하여 임의로 한약을 선정하여 방제를 구성할 수 있다.(표4 참조)

31)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위의 책, 1981: 479.

표4. 太陰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氣味배합	治以苦冷	佐以鹹甘	以苦平之
	方劑에	君藥	臣藥	佐藥
太陰在泉 熱氣反勝	방제 ①	黃芩(苦寒)	澤瀉(甘鹹寒) 甘草(甘平)	黃柏(苦寒)
	방제 ②	黃連(苦寒)	澤瀉(甘鹹寒) 白茯苓(甘淡平)	知母(苦甘寒)
	방제 ③	苦參(苦寒)	龜甲(鹹甘微寒) 豬苓(甘淡平)	玄蔘(甘苦鹹微寒)
	방제 ④	茵陳蒿(苦辛微寒)	金錢草(甘鹹微寒) 白茯苓(甘淡平)	白朮(苦甘溫)
	방제 ⑤	虎杖根(微苦微寒)	牡蠣粉(鹹微寒) 豬苓(甘淡平)	厚朴(苦辛溫)
	방제 ⑥	防己(苦寒)	芒硝(鹹苦寒) 燈心草(甘淡微寒)	黃柏(苦寒)
	.	.	.	.

위의 기미배합에 적합한 기성방제로는 茵陳四苓散、八正散、五淋散、四妙丸、宣痹湯 등을 선별할 수 있다.(표5 참조)

표5. 太陰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맞는 기성方劑 예

	氣味배합	治以苦冷	佐以鹹甘	以苦平之
	기존方劑	君藥	臣藥	佐藥
太陰在泉 熱氣反勝	茵陳四苓散	茵陳蒿(苦辛微寒)	澤瀉(甘鹹寒); 白茯苓(甘淡平), 豬苓(甘淡平)	白朮(苦甘溫)
	八正散	煨大黃(苦寒), 梔子(苦寒)	車前子(甘微寒), 滑石(甘淡寒), 炙甘草(甘平), 燈心草(甘淡微寒)	萹蓄(苦微寒), 瞿麥(苦寒), 川木通(淡苦寒)
	五淋散	梔子(苦寒)	白茯苓(甘淡平), 生甘草(甘平), 當歸(甘辛溫)	赤芍藥(苦微寒)
	四妙丸	黃柏(苦寒)	薏苡仁(甘淡涼), 川牛膝(甘微苦平)	蒼朮(辛苦溫)
	宣痹湯	連翹(苦微寒), 梔子(苦寒)	滑石(甘淡寒), 薏苡仁(甘淡涼), 晚蠶砂(甘辛溫), 赤小豆皮(甘酸平)	防己(苦寒), 苦杏仁(苦微溫), 半夏(辛溫)

## Ⅵ. 결 론

『黃帝內經』의 氣味藥性論에 입각하여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氣味배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방제나 創方의 氣味論의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素問』의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병증과 氣味배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병증과 배합은 運氣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병증을 운기론에서 인체론으로 분석하였고, 氣味배합은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에 입각하여 분석한 뒤에 氣味배합에 맞는 한약배합을 시도하고, 이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성 방제를 선별하였다.

運氣論에 바탕을 둔 ‘太陰在泉 濕淫所勝’의 병증을 인체론으로 바꾸어 보면 濕氣外淫內傷腎證으로 볼 수 있고, 이의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성방제는 五苓散、眞武湯、防己黃芪湯、甘薑苓朮湯、實脾散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太陰在泉, 熱氣反勝’의 기미배합에 부합하는 기성방제는 茵陳四苓散、八正散、五淋散、四妙丸、宣痹湯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素問』 「至眞要大論第74」에 제시된 運氣論의인 六氣의 병증을 人體論의으로 바꿀 수 있고, 『황제내경』의 氣味藥性論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氣味배합으로 기성방제를 분석함으로써 한약학과 방제학 본래의 氣味藥性論의인 체계에서 기존 방제를 분석하는 방법론 뿐만이 아니고 創方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색 인 어 >>

『素問』 「至眞要大論」, 氣味藥性論, 運氣論, 氣味方劑, 太陰在泉 濕淫所勝

## 參 考 文 獻

1. 許濟群、王綿之 主編. 『方劑學』. 第1版 第2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王雲凱 主編; 朱壯涌、康鎖彬、吳復蒼、劉仲喜 副主編. 『中國名醫著名方』. 第1版 第1次印刷.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3. 成無己 著; 朱鵬飛 校注. 『傷寒明理論』.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華夏出版社, 1998.
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下).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北京出版社, 1997.
5. 李時珍 著. 『本草綱目』(校點本 第1冊).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6. 吳瑭 著; 王效菊 校注. 『溫病條辨』. 于伯海 主編.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華夏出版社, 1998.
7. 尹吉榮 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서울: 成輔社, 1983.
8.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1.
9. 方藥中、許家松 著.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0. 巢元方 等著. 『諸病源候論』. 第1版. 第5

- 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 郭靄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第1版. 第1次印刷.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12. 鄭林、楊幼新、趙亞莉、李立祥 主校; 王玉興、翁連溪、孫燕平 協校. 『黃帝內經素問集注』. 鄭林 主編; 王國辰、孫中堂、齊昉 副主編. 『張志聰醫學全書』.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高士宗 著; 于天星 按. 『黃帝素問直解』. 第2版. 第1次印刷.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14. 張介賓 編著.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5. 梁運通 主編. 『黃帝內經類析』. 第1版 第1次印刷.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16. 王冰 撰; 高保衡、林億 注. 『黃帝內經素問』. 第1版 第6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7. 國家藥典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藥典』. 一部 2000年版. 北京: 化學工業出版社, 2001.